

# '출생아 증가' 나주시 출산·육아 지원 대폭 늘린다

### 지난해 8% 늘어...전남 시 지역 유일 가사돌봄 이용시간 늘려 실효성 보장 난자 냉동 채취 시술비 지원 신설

지난해 전남 시(市) 지역 가운데 출생아 수가 유일하게 증가한 나주시가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1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시 출생아 수는 735명으로, 전년(680명)보다 8.1%(55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1.2% 감소(8027명→7933명)했다. 1년 새 전남 시 지역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나주시가 유일하다. 나주시는 인구 자연 증가를 이끌기 위해 임신부

터 출산, 육아까지 지원 정책을 보강해 올해부터 추진한다.

임신·출산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돌봄'은 1회 이용 시간을 1시간 늘려 실효성을 보강했다. 애초 1회 3시간(총 5회)에서 1회 4시간(총 4회)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임신 가정의 나주 거주기간과 둘째아 이상 출산, 장애인 여부 등 지원 제한 조건을 폐지하고 모든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난자 냉동 채취시술비'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정책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전남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대 여성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 냉동보관을 원하면 난자채취 시술비와 초음

파, 주사료, 약제비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올해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조정해 효율을 꾀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해왔다.

6개월 거주 조건도 전면 폐지해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첫째아 기준 영아기(0세)에 현금 100만원을 6개월 간격으로 나눠 지원하고 이후 2세부터 200만원을 반기별 50만원씩 나주시사랑카드도 지급한다.

지급방식 개편은 영아기(0~1세)에 편중된 지원을 유아기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

다. 지역화폐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했다.

전남도와 연계한 출산·지원정책도 확대·강화됐다.

출생아 1인당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올랐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의 경우 애초 셋째아 가정에서 둘째아 가정으로 조건을 완화해 출생아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차별 두지 않는 보편적 정책 지원과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까지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새해 달라진 임신·출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국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성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농림축산 보조사업 144건 추진

장성군이 올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농림축산분야 보조사업 144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분야 보조사업 내용은 안내서로 제작돼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에 배부됐다.

장성군은 지난 15일 '2024년 농림분야 보조사업 설명회'를 열고 농업 분야 담당 공무원 40여 명과 새해 달라지는 농정시책과 농정 방향, 보조사업 추진 요령 등을 공유했다.

우선 농업축산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69개 사업을 추진한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마을공동급식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 달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3월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유통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등 38개 사업을 시행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채소 농가라면 2중 내재해형 하우스와 자동 개폐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 발생기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40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등 33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센터 창업 전문교육을 받은 18~49세 청년 농업인은 농업시설 신축과 개보수, 농업용 장비 구매 때 지원을 받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함평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

함평군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저소득·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순위로 5가구를 뽑아 진행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감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선정된 자,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이다.

오는 2월23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춘 뒤 함평군 환경관리과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흥군 버섯산업 발전 10년 청사진...4대 혁신 방향 제시

###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보고회 협의제도 결성...민·관 협력 노력

장흥군이 표고버섯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버섯산업 발전 구도를 설계했다.

장흥군은 지난 16일 균형 상황실에서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 발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장흥군 버섯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에는 군비 2000만원을 들여 넉 달간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실과소장, 버섯산업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섯산업 운영 구조를 진단하고 '장흥군 버섯산업의 10년'을 내다보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장흥군 미래 버섯산업 4대 혁신 방향과 12개 전략 과제를 끌어냈다.

4대 혁신 방향은 소비자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유통'과 연구·개발(R&D)을 위한 '가공', 산업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아우른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장흥군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홍보·유통체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냈다.



장흥군(군수 김성·가운데)이 최근 '버섯산업 육성 발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버섯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앞서 장흥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인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장흥군버섯산업 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는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연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촉진 등 버섯 산업통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흥군은 건표고버섯 생산량이 전국의 30%, 전남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지난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표고버섯 주산지'로 지정되

고, 2006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표시제 입산물 2호'에 등록됐다.

하지만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임업 농가가 고령화하면서 산업기반을 다지고 수익기반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의 대표 특화작목인 버섯산업을 육성하고 원목 표고버섯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군 재해예방사업 다음달까지 90% 발주

### 5개 분야 12개 지구 172억 규모

화순군은 '재해예방 사업 조기추진단'을 운영해 다음 달까지 90% 이상 사업 발주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해예방 사업을 이룬 시기에 추진해 위험 요인

을 없애고 건설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화순군은 집중 호우가 오기 전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사업은 여름철 태풍·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5개 분야 총 12개 지구가 대상지이다. 사업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자연 재해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등으로 나뉜다. 올해 사업비는 172억원으로, 전년(156억원)보다 16억원 늘었다.

재해예방 사업 조기추진단은 강종철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반 8명으로 구성·운영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